

농어촌지역의 독서실태가 도서관 독서문화 환경 정책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 A지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Status of Local Reading in Rural Areas on Perceptions of Library Reading Environment Policies: Focusing on Area A

정 대 근 (Daekeun Jeong)*

홍 소 략 (Soram Hong)**

초 록

이 연구는 농어촌지역의 독서실태와 독서실태가 지방 행정 주도의 도서관 독서문화 환경 정책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독서문화 형성을 위한 선순환구조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A농어촌지역 성인 및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성인 97명, 학생 113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적극적인 독자와 무관심한 비독자가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또한 독서활동은 독서의 자기만족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비독자 유입을 위해서는 도서관 이용 및 접근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비독자 유입 이후 독서문화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독서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establishing a structure to foster local reading culture. The research goals are as follows: the factors of local reading behavior; the influence of the status of local reading on the perception of local administration-lead reading environment policies. The responses of 97 adults and 113 students from A rural to about questions about reading behavior and the their perceptions of reading environment policies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research are as follows: polarization between active readers and an indifferent non-readers; reading activities related with self-satisfaction improvement of reading. Therefore the propose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important to encourage the use of libraries to convert non-readers into readers. Second, it is important to encourage reading activities to continuously vitalize reading culture.

키워드: 독서활동, 독서환경, 독서문화, 지역 독서정책, 농어촌독서

Reading Activities, Reading Environment, Reading Culture, Local Reading Policies, Reading in Rural Areas

*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dkjeong@gwangju.ac.kr) (제1저자)

**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초빙교원(gardenofstone@naver.com)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4년 11월 19일 논문심사일자 : 2024년 11월 21일 게재확정일자 : 2024년 12월 3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5(4): 141-162, 2024.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4.35.4.141>

* Copyright © 2024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독서실태조사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성인의 종합 독서율 추이는 2013년 72.2%에서 23년 43.0%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종합 독서율의 개념이 최근 1년 내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중 1권 이상 읽은 비율이라는 점에서, 매체를 막론하고 책을 1년 이상 접하지 않은 사람이 성인의 절반을 넘는다는 의미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4a).

독서를 저하는 문해력의 저하와 직결된다. 문해력은 읽기와 쓰기 능력으로 이해되는 기능적 패러다임과 텍스트를 통한 사회문화적 실천으로 이해되는 비판적 패러다임으로 나뉘는데, 이 두 가지 패러다임은 상호 대립되는 관점에서 나아가 읽기와 쓰기 능력을 통해 사회문화적 실천과 관계를 맺으며 자기성찰을 통한 성장을 추구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환원된다(정혜승, 2008). 이 점에서 읽고 쓰기 능력으로서의 문해력 저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의 이해와 실천 저하와 밀접하게 연관되며 의사소통 능력의 저하로 인한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환원된다. 정치, 경제, 지역, 성별 등 다양한 갈등 상황이 격화되는 현시대에 있어 소통 능력의 저하는 단절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갈등의 강화와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독서문화를 확대하는 것은 문해력 회복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의 복원에 있어 중요한 사회문화적 요구사항이다. 특히 전통적 개인의 독서 개념에 국한되지 않는 독서행위의 확장과 텍스트를 매개로 타자와 소통한다는 독서의 본질에 집중한 '사회적 독서'의 개념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김은혜, 2024). 독서 개념을 개인 차원의 행위적 관점에서 나아가 독서를 하는 이유에 집중한 목적적 관점으로 확대하는 것은 독서문화가 일부를 책을 향유하는 '독자' 집단의 행위만으로 국한되지 않는 사회 보편의 기반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기조는 2019년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서 5대 의제 중 첫 번째 의제로 사회적 독서를 선언한 것으로부터 확산(문화체육관광부, 2019, 8)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2024년 발표된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서는 독서가 가지는 사회적 파급력에 집중하며 비독자 대상, 생애초기 독서습관 형성, 독서환경 개선, 유관 정책영역과의 협력을 통한 진흥기반 고도화를 추진 방향으로 삼고 있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4b).

독서문화의 사회적 정착과 성숙 과정에서는 독서문화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다. 그러나 수도권 과집중 및 과밀화로 인한 독서기반의 집중으로 인해 독서문화의 정착에 있어서도 정치·경제적 요인에 서처럼 지방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3 '독서문화 환경 개선'에서 정책과제 9로 '지방시대, 지역사회 독서기반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4b). 정책과제로서 지역사회의 독서기반 형성을 명시했다는 것은 지역 기반 독서수요 창출 지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독서지표 개선, 독서진흥 표준조례 제정 및 보급 등 지역 행정 주도적 독서문화 환경 구축을 통해 지역 독서문화의 정착 및 확산이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를 증명하듯 고양시, 파주시 등 다양한 지역이 지자체 단위의 독서문화진흥 중

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시도 중에 있다(대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 한국도서관협회, 2021).

따라서 이 연구는 사회 차원에서의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비독자·독자들이 요구하는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 행정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사회적 독서활동과 지역 행정의 독서문화 환경 조성이 맞물려 지역의 독서문화 형성을 위한 선순환구조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첫째, 지역의 독서문화를 형성하는 독서실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하고, 지역 독서실태들 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둘째, 지역의 독서실태가 지방 행정 주도의 독서문화 환경 정책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였다.

1.2 선행연구

우리나라의 독서문화 정책은 국가 단위의 독서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독서행위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정부 지정 '책의 해' 사업의 일환으로 독서실태 조사를 추진한 이후 연간 독서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12년부터는 통계작성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한국출판연구소, 2013, 24). 국가 단위의 통계 이외에도 독서실태는 다양한 목적에 의해서 조사·연구된 바 있다. 첫째,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한 독서실태조사이다. 초등 수학 영재(이은주, 김관수, 2022)나 청소년(김해인, 이창희, 2024; 김혜정, 허모아, 2021), 베이비붐 세대의 장년

층 독자(김해인, 2022) 전라북도 지역의 초·중·고 학생(김성준, 2014), 취약계층 아동·청소년(김현애, 2022), 대학생(권이은, 2021) 등 주로 아동·청소년 연령대의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교육과의 연관성에서 독서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특정 지역의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독서실태 조사이다. 고양시(대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 송민선 외, 2023), 파주시(한국도서관협회, 2021) 등 지역 내에서의 맞춤형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을 만들기 위해 해당 지역 내의 성인·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 단위의 연구에서는 전국 단위의 조사인 국가 단위 통계와의 비교를 위해서 국민독서실태조사의 문항과 유사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았다.

이 중 김현애(2022)의 연구는 이용자의 독서실태조사가 아닌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련 지원정책을 조사하였고, 권이은(2021)은 다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독서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해당 연구들과 국민독서실태조사의 문항과 유사성을 지닌 지역 연구를 제외하고 독서실태를 개발 및 조사한 연구들에서 독서실태조사 항목 및 문항을 구성한 것은 다음 <표 1>과 같다.

독서량은 독서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기본 문항으로 반복하여 등장하고 있었다. 있었다(김성준, 2014; 김해인, 2022; 김혜정, 허모아, 2021). 또한, 스마트폰(김혜정, 허모아, 2021)이나 특수한 시기(김해인, 이창희, 2024)가 독서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 경우도 일부 있었다.

특히 다수의 연구들에서 독서환경을 독서실태조사의 항목으로 두고 있다(김성준, 2014; 김해인, 이창희, 2024; 문화체육관광부, 2024a; 이

〈표 1〉 선행연구의 독서실태조사 문항 조사

저자	항목	문항
김성준 (2014)	독서환경	학교도서관 이용편리성, 학교도서관 장서만족도, 가정의 장서수준, 학부모의 자료구입 가능성
	독서교육	독서교육활동 참여 정도, 독서교육활동 만족도, 교사의 영향, 학부모의 영향, 친구의 영향
	독서경험	독서량, 독서시간
	독서능력	독서자료 이해력, 독서자료 감상력, 독서습관 형성, 독서자료 선택능력
김해인 (2022)		독서량
		독서빈도
		독서이유
		독서장애요인
		생애독서그래프
김해인, 이창희 (2024)	독서 태도	자발적 독서활동 여부, 자발적 독서 빈도, 독서 선호
	가정 독서 환경	가정의 독서 환경 및 부모의 독서 신념, 가정에서 수행하는 독서 활동 여부
	코로나19와 독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로 인한 독서량 변화
	개인적 특성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님의 최종 학력, 부모님의 직업
김혜정, 허모아 (2021)	독서실태	독서량(독서 주기), 독서빈도, 1회 독서 시 독서 분량, 주로 읽는 책의 종류
	독서에 대한 인식	독서 이유, 비독서 이유, 비독서 계기, 독서의 어려운 점
	스마트폰 사용 양상	스마트폰 사용 시간, 스마트폰 활동 유형
	스마트폰과 독서의 관계에 대한 인식	스마트폰 취득 시기, 스마트폰으로 인한 독서 어려움의 정도, 스마트폰 없을 시 독서에 대한 의지
문화체육관광부 (2024a)	응답자 특성(성인)	성별, 연령, 지역, 학력, 직업, 가구소득
	응답자 특성(학생)	성별, 학년, 학교 소재지
	독서에 대한 인식	독서의 범위에 대한 생각, 독서 관련 경험 활동, 독서 선호도, 독서 장애요인, 본인의 독서량 평가, 독서의 도움 정도, 독서의 유용성
	독서 생활	독서 경험, 독서 이용 매체, 독서 빈도, 독서 시간, 독서량
	독서 행태	독서의 목적, 독서 장소, 도서 선호 분야, 도서 선택 시 이용 정보, 도서 입수 경로, 책 구입처, 책 구입 권수 및 구입비, 타 장르를 통한 독서 경험
	전자책(웹소설 포함), 오디오북 이용	전자책 등의 이용 기기, 전자책 등의 이용 이유, 전자책 등의 이용 유형
	독서 환경(성인)	도서관 이용 경험,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 독서 활동 참여 경험, 참여해 본 독서 활동, 독서 활동 도움 정도
	독서 환경(학생)	가정(부모)의 독서 권장, 독서 대화, 부모의 독서 권유, 선생님의 독서 권유, 독서 지도 방법, 도서관 이용 경험,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 독서 활동 참여 경험, 참여해 본 독서 활동, 독서 활동 도움 정도
	독서태도	독서의 필요성, 독서의 인식, 독서와 학습, 독서 흥미
	독서 경험	여가를 이용한 독서, 독후 활동, 도서의 선택, 독서 습관, 독서량, 독서 시간
이은주, 김관수 (2022)	독서 환경	가정환경, 학교환경, 지역사회환경
	독서 지도	과거 독서 지도, 희망 독서 지도

은주, 김판수, 2022). 가정환경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거나(김해인, 이창희, 2024; 이은주, 김판수, 2022), 특히 설문대상자가 접근 가능한 도서관을 대표적인 독서환경으로 상정한 연구도 있었다(김성준, 2014; 문화체육관광부, 2024a).

국가독서실태조사에서의 독서환경은 성인의 경우 도서관과 독서활동으로, 학생의 경우 가정, 도서관, 독서활동 등 세 가지 유형의 문항으로 나뉘었다. 이 점에서 도서관과 독서활동(프로그램)은 독서환경과 그 영향력을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이다. 그 외에 이은주와 김판수(2022)는 지역사회환경을 독서환경의 한 문항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해당 문항은 ‘독서회, 논술학원, 독서클럽 등의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으로(이은주, 김판수, 2022, 49) 지역사회의 민간 차원에서의 독서인프라를 설명하고 있었다.

지역사회의 독서환경을 민간 차원에서의 인프라 이상으로 공공 차원에서 확보하는 것은 독서복지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데, 김현애(2022)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독서복지 사업 실태를 분석하며 공공도서관, 지역 돌봄복지시설, 학교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참여자의 만족도는 높되 단기·일시적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점을 단점으로 설명하여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지점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 점에서 지역 공공기관을 관할하는 지방 행정의 지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성준(2014)은 독서환경, 독서교육, 독서경험, 독서능력 4가지의 잠재변수로 인과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여기에서 독서환경은 독립변수이고 독서능력이 종속변수, 독서교육과 독

서경험이 매개변수로 작용하였다. ‘독서환경 ▶ 독서경험’, ‘독서환경 ▶ 독서교육’, ‘독서교육 ▶ 독서경험’, ‘독서경험 ▶ 독서능력’, ‘독서교육 ▶ 독서능력’ 등 5가지의 가설에 대해 유일하게 채택되지 않은 가설은 독서환경이 독서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었다. 이는 단순한 시설 확보보다 이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과, 독서환경이 독서교육을 거쳐서 독서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간접효과는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설명된다. 김성준(2014)의 연구에서 독서경험은 독서교육활동 참여 정도, 독서교육활동 만족도 등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이 문항은 문화체육관광부(2024a)의 국가독서실태조사와 비교하면 ‘독서환경’ 항목 내의 ‘독서활동’ 참여와 만족도에 준하는 것이다. 인과가 기각된 두 잠재변수가 독서환경이라는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다각적으로 재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두 선행연구 모두 ‘참여 정도’와 ‘만족도’를 동일한 항목 또는 잠재변수로 묶고 있는데, 참여 정도와 만족도가 서로 상이한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독서실태조사에서는 독서량을 중심으로 한 직접적 독서행위와 독서환경을 중요 요소로 다루는데, 독서환경은 아동 및 청소년 측면에서는 가정환경이 강조되지만 성인과 학생 공통적으로는 도서관과 독서활동이라는 두 가지 환경으로 대별된다. 이 중 독서활동은 도서관 및 가정 중심의 독서환경과 별도의 잠재변수로 취급되어 인과관계 분석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나 직접적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 검증은 기각되었다. 더불

어 독서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와 만족도가 같은 잠재변수로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도서관과 독서활동의 참여 정도나 이용 여부를 독서문화 환경이 아니라 그 자체를 독서실태로 보고, 도서관과 독서활동의 만족도를 독서문화 환경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여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독서환경은 지역사회 단위의 범위로도 분석되는데, 민간 중심의 지역사회 독서인프라를 확인하는 연구도 있었지만 공공도서관과 같은 정책적 차원에서의 독서문화 환경 형성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과 같은 독서소외인 대상의 독서복지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공공 차원의 독서복지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 행정의 활동은 독서문화 환경의 중요한 기반이 되므로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의 도서관의 독서문화 환경 조성 정책들을 독서환경의 주요 요소로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설계

2.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첫 번째로 지역의 독서문화를 형성하는 독서실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선행 연구를 통해 도출하고, 지역 독서실태들 간의 관계를 탐색할 것이다. 두 번째로 지역의 독서실태가 지방 행정 주도의 도서관 독서문화 환경 정책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독서실태와 지역 행정의 독서문화 환경 정책의 관계가 독서문화 발전에 어떠한 선순환을 구성하는지 그 구조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역의 독서실태의 관계가 중요한 것은 독서실태로부터 촉발되는 요구와 그 정도가 지방 행정의 수요자 중심적 독서문화 환경 조성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독서실태에 따라 더욱 적극적인 요구가 제공되는 분야에 따라 독서문화 환경 조성 정책의 방향이 바뀔 수 있고, 정책으로 인해 사회적 독서활동이 확산되는 선순환구조가 마련될 수 있다. 이러한 선순환구조는 특히 취약계층 대상의 독서복지 차원에서 중요하다.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정책과제 6 ‘독서소외인 독서습관 형성 지원’은 장애인·저소득층·다문화가정·군장병 및 수형자 등의 독서소외인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 조성, 공간 확충, 인프라 지원을 추진 방향으로 잡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4b). 또한 정책과제 5 ‘생애주기별 독서습관 형성 지원’의 추진과제 5 ‘노년기 독서프로그램 확대’는 지역거점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 독서프로그램을 골자로 삼는다(문화체육관광부, 2024b).

따라서 이 연구는 지역 중에서도 노년인구, 다문화인구 등 독서소외인과 비독자인구 환경 가능성이 높은 지식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제정된 89개 지역 중 한 곳인 A지역을 선정하였다. A지역은 고령인구가 2023년 기준 29%인 초고령사회이며,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해당 단지에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 및 그 가족 인구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다. 노령인구 및 다문화인구 등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취약계층 대상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지역으로 복지로서의 독서문화 차원에서 공공의 지

원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이기에 해당 지역을 선행연구의 문제의식에 적합한 표본 지역으로 선택하였다.

연구대상은 성인과 학생을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24년 3월이다. 조사는 설문지를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배포하며 이루어졌고, 오프라인은 이장단 등 성인 군민을 대상으로 300부를 행정기관 협조하에 배포하였고, 온라인은 도서관 회원 대상 SMS나 메신저, 관내 학교 협조 공문 발송 등을 통해 URL을 배포하여 참여토록 하였다. 회수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성인 대상으로는 239부 회수하였고 이 중 결측값과 이상치 포함한 142부를 제거하여 97부를 사용하였다. 오프라인 배포 과정에서 고연령층

대상의 설문지에서 핵심 문항인 추진사업 문항 응답에서 전면 누락이 발생한 부수를 엄격하게 배제하였다. 학생 대상으로는 133부 회수하였고, 이 중 불성실한 응답과 이상치를 포함한 부수 20부를 제거하여 113부를 사용하였다. 이상치 부수는 문항 중 5점 척도로 조사하지 않은 1년 독서량을 대상으로 검토하였고, Z-Score의 절대값이 3 이하로서 상/하위 아웃라이어 0.1%에 해당하는 부수를 확인하여 제외해 처리하였다.

2.2 분석문항 및 방법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질의분야는 독서실태와 도서관 독서문화 환경 인식으로 나뉜다. 문항 구성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2> 설문지 회수 및 분석대상 부수 산출

대상	회수부수	제외부수	분석대상부수
성인	239	142	97
학생	133	20	113
총계	372	162	210

<표 3> 분석 대상 문항 구성

질의 분야	응답자		문항내용	척도	문항수	출처
	성인	학생				
독서실태	○	○	독서의 유용성	연속형	1	*
	○	○	독서량(1년)	연속형	1	**, ***
	○	○	독서량 만족도	연속형	1	*
	○	○	도서관 이용여부(1년)	범주형	1	*
	○	○	독서활동 참여여부(1년)	범주형	1	보완: *
	○	○	향후 독서활동 참여의사	범주형	1	보완: ****
도서관 독서문화 환경 인식	○	×	도서관 만족도	연속형	11	****, *****
	○	×	추진사업 중요도: 독서문화지원	연속형	10	보완: ****, *****
	○	×	추진사업 중요도: 공간조성	연속형	7	
	○	×	추진사업 중요도: 서비스	연속형	7	

* 문화체육관광부(2024a), ** 이은주, 김관수(2022), *** 김혜정, 허모아(2021), **** 대림대학교 산학협력단(2022), ***** 한국도서관협회(2021)

독서실태는 국가 단위 통계인 문화체육관광부(2024a)의 국민독서실태조사 문항을 기반으로, 선행연구의 시사점을 참고하였다. 직접적 독서실태 관련 문항 3개(독서의 유용성, 독서량(1년), 독서량 만족도)와, 독서문화 환경에 해당하지만 독서실태로서 문항을 별도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도서관 이용여부(1년), 독서활동 참여여부(1년), 향후 독서활동 참여의사는 독서실태로 재분류하였다.

독서문화 환경 인식은 독서문화 환경에 해당하는 요소 중 만족도에 해당하는 측면을 분리하였다. 특히 가장 중요한 독서문화 환경으로 인식되는 도서관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더불어 선행연구의 시사점에서 도출된 대로 지방 행정의 지원 또한 중요한 독서환경에 해당하기에, 지역 단위의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문헌인 대림대학교 산학협력단(2022)의 고양시 대상 연구 영역과 한국도서관협회(2021)의 파주시 대상 연구 영역을 참고하여 A지역에서 추진하는 독서 관련 사업의 중요성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해당 추진사업은 분야별로 독서문화지원, 공간조성, 서비스 등 3개의 분야로 세분화하였다. 해당 지역 내 독서 관련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파악되어야 하는 독서문화 환경에 대한 인식은 성인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속형 척도 문항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범주형 척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카이스퀘어 분석을, 범주형 변수에 대한 연속형 범주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활용하였다. 또한 독서실태가 독서문화 환경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범주형 변수를 더미변수로 변환시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도구는 SPSS 22를 사용하였다.

2.3 기술통계

독서실태 중 연속형 문항의 기술통계는 다음 <표 4>와 같다. 연속형 문항은 독서 유용성, 연간 독서량의 합, 독서량 만족도이며, 이 중 독서 유용성과 독서량 만족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독서량은 숫자 기입으로 처리되었다.

독서 유용성 평균은 4.400으로, 성인은 4.485로, 학생은 4.327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독서량의 합은 전체 평균 13.300, 성인 13.809, 학생 12.863으로 마찬가지로 학생보다 성인의 독서량 평균이 1권 가량 많았다. 반면 독서량 만족도는 3.076으로 독서 유

<표 4> 독서실태 기술통계 1: 연속형 문항

항목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독서 유용성	성인	97	4.485	.7233	4.400	.7653
	학생	113	4.327	.7956		
독서량	성인	97	13.809	13.3353	13.300	12.6669
	학생	113	12.863	12.1065		
독서량 만족도	성인	97	2.876	.9493	3.076	.9850
	학생	113	3.248	.9868		

용성보다 낮았으며, 성인이 2,876, 학생이 3,248로 성인이 학생보다 독서량 만족도 평균이 낮았다.

독서실태 중 범주형 문항의 기술통계는 다음 <표 5>와 같다. 범주형 문항은 도서관 이용여부, 독서활동 참여여부, 향후 독서활동 참여의사로, 3가지 문항 모두 있다/없다의 2개 범주로 구분되었다.

도서관 이용여부는 '있다'가 145명(69.0%), '없다'가 65명(31.0%)으로 '있다'가 응답률이 더 높았다. 성인과 학생 중에는 학생이 82명(72.6%)으로 성인(63명, 64.9%)보다 도서관을 이용한 적 있는 응답자가 많았으며, 학교도서관 등 도서관이 시설 내 인접해있어 접근성이 좋고 수업 중 학교도서관이 연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독서활동 참여여부는 '있다'가 62명(29.5%), '없다'가 148명(70.5%)으로 오히려 '없다'가 응답률이 더 높았다. 다만 성인의 경우 '있다'가 63명(64.9%)으로 '없다'(34명, 35.1%)보다 많고, 반면 학생은 '없다'가 78명(69.0%)으로 '있다(35명, 31.0%)'보다 많았다. 향후 독서활동 참여의사는 '없다(119명, 56.7%)'가 '있다(91명, 43.3%)'에 비해 많았지만 앞선

다른 문항의 차이에 비하면 근소한 차이였고, 마찬가지로 성인의 경우 참여의사가 '있다(63명, 64.9%)'가 '없다(34명, 35.1%)'보다 많았지만, 학생은 '없다(70명, 61.9%)'가 '있다(43명, 38.1%)'보다 많았다.

독서문화 환경 인식의 기술통계는 다음 <표 6>과 같다. 이 분야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질의되었다. 도서관 만족도, A지역의 독서문화 환경 사업을 독서문화지원사업, 공간조성사업, 서비스사업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 문항 수는 도서관 만족도 11개, 독서문화지원사업 중요도 10개, 공간조성사업과 서비스사업 각 7개이다.

4개 분야 중 평균이 가장 높은 분야는 서비스사업 중요도로 3.817이었으며, 제일 낮은 분야는 독서문화지원사업 중요도로 3.729이다. 문항 단위에서 응답 평균 최상위 문항은 도서관 만족도의 '도서관 이용 지속의사(4.124)', '대출/반납/검색 원활도(4.113)', '도서관 이용 추천의사(4.113)'였다. 반면 응답 평균 최하위 문항은 독서문화지원사업의 '독서토론티더 양성(3.426)'과 '다문화 서비스(3.629)'의 중요성, 서비스사업 '작은도서관 통합 시스템 조성(3.629)'의 중요성, 도서관 만족도의 '도서관 직원의 전문성

<표 5> 독서실태 기술통계 2: 범주형 문항

항목	집단	있다(비율)	없다(비율)	총계
도서관 이용여부	전체	145(69.0%)	65(31.0%)	210(100%)
	성인	63(64.9%)	34(35.1%)	97(100%)
	학생	82(72.6%)	31(27.4%)	113(100%)
독서활동 참여여부	전체	62(29.5%)	148(70.5%)	210(100%)
	성인	63(64.9%)	34(35.1%)	97(100%)
	학생	35(31.0%)	78(69.0%)	113(100%)
향후 독서활동 참여의사	전체	91(43.3%)	119(56.7%)	210(100%)
	성인	63(64.9%)	34(35.1%)	97(100%)
	학생	43(38.1%)	70(61.9%)	113(100%)

〈표 6〉 도서관 독서문화 환경 인식 기술통계

문항명		N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도서관 만족도	도서관 직원의 전문성	97	3.629	.9609	3.870	.7180
	도서관 직원의 태도	97	3.928	.9382		
	도서관 자료 양적 만족도	97	3.629	.8935		
	대출/반납/검색 원활도	97	4.113	.9000		
	홈페이지/디지털자료실	97	3.680	.9191		
	독서문화프로그램	97	3.763	.8633		
	시설의 쾌적함과 편안함	97	3.979	.9240		
	도서관 접근성	97	3.711	1.0202		
	서비스 만족도	97	3.897	.8476		
	도서관 이용 지속의사	97	4.124	.8928		
	도서관 이용 추천의사	97	4.113	.8765		
독서문화 지원사업	독서토론리더 양성	97	3.426	.7915	3.729	.6188
	장애인 프로그램	97	3.673	.7483		
	독서진흥 프로그램	97	3.737	.7810		
	어린이 프로그램	97	4.021	.8658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97	3.742	.7810		
	다문화 서비스	97	3.629	.7405		
	인문학 강좌	97	3.668	.8499		
	지역 이해의 책	97	3.649	.7778		
	시니어 동화구연	97	3.670	.7735		
	자료 확충	97	4.072	.8569		
공간 조성사업	신규도서관 건립	97	3.722	.8629	3.764	.7012
	신규 작은도서관 운영	97	3.660	.8150		
	도서관 내 창작공간 조성	97	3.804	.8119		
	스마트도서관 시스템 구축	97	3.680	.7846		
	지역 인문학자료실	97	3.753	.8040		
	도서관 특화 및 리모델링	97	3.913	.8506		
	도서관 신축/이설사업	97	3.814	.9052		
서비스 사업	이동도서관	97	3.948	.8584	3.817	.6946
	장난감 이동도서관	97	3.794	.9007		
	찾아가는 도서대출	97	3.907	.8426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97	3.845	.8937		
	정보화프로그램	97	3.691	.7821		
	희망도서 바로대출	97	3.907	.8426		
	작은도서관 통합 시스템 조성	97	3.629	.8206		

(3.629)', '도서관 자료 양적 만족도(3.629)'였다. 도서관 만족도의 경우 도서관에 대한 보편적인 만족도는 높지만, 도서관 직원의 전문성이나 자료의 양적 만족도가 낮았다. 독서 관련 사업

에 대해서는 독서 관련한 특정 집단이나 전문성을 담보하여 상대적으로 보편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분석 결과

3.1 독서실태 분석

독서실태는 연속형 척도인 독서의 유용성, 독서량, 독서량 만족도와 범주형 척도인 도서관 이용여부, 독서활동 참여여부, 향후 독서활동 참여의사로 이루어져 있다. 연속형 척도로 측정된 문항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범주형 척도로 측정된 문항 간의 관계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속형 척도와 범주형 척도의 관계는 범주형 척도를 독립변수로, 연속형 척도를 종속변수로 두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3가지 관계 중 독서 유용성과 독서량, 독서 유용성과 독서량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도출되었다. 반면 독서량과 독서량 만족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도출되지 않았다. 독서 유용성과 독서량은 0.211로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독서 유용성과 독서량 만족도는 -0.180으로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나타났다. 이는 독서를 많이 하는 것과 독서의 유용성에 대한 체감이 커지는 것은 관계가 있지만, 동시에 독서 유용성을 느낄수록 자신의 독서량에 대해서는 반성적 태도를 취하게 될 확률이 높음을 시사한다.

독서실태 간의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도서관 이용여부, 독서활동 참여여부, 향후 독서활동 참여의사 간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도출되었다. 도서관 이용여부와 독서활동 참여여부는 두 응답 모두 '있다'라고 한 응답자(기대개수 42.8, 실제 응답 56)와 모두 '없다'라고 한 응답자(기대개수 45.8, 실제 응답 59)가 기대개수보다 실제 응답이 높았다. 반대로 서로 다르게 응답한 응답자는 기대개수에 비해 실제 응답이 낮았다. 도서관 이용여부와 향후 독서활동 참여의사 또한 모두 '있다'라고 한 응답자(기대개수 62.8, 실제 응답 78)와 모두 '없다'라고 한 응답자(기대개수 36.8, 실제개수 52)가 기대개수보다 실제 응답이 높았다. 독서활동 참여여부와 향후 독서활동 참여의사 간에도 모두 '있다'라고 한 응답자(기대개수 26.9, 실제 응답 48)와 모두 '없다'라고 한 응답자(기대개수 83.9, 실제 응답 105)가 기대개수보다 응답이 높았다. 3가지 모두 공통되게 독서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독서실태 간의 독립표본 T-검정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도서관 이용여부에 따라 독서 유용성, 독서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했다. 도서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의 독서 유용성

<표 7> 독서실태 간의 관계 분석 1: 연속형 척도

항목	독서량	독서량 만족도
독서 유용성	.211(.002)**	-.180(.009)**
독서량	-	.111(.109)

* > 0.05, ** > 0.01, *** > 0.001

〈표 8〉 독서실태 간의 관계 분석 2: 범주형 척도

도서관 이용여부와 독서활동 참여여부 간 관계			독서활동 참여여부			χ^2 (p)
			있다	없다	총계	
도서관 이용여부	있다	개수(비율)	56(26.7)	89(42.4)	145(69.0)	18,631 (.000)*** (df = 1)
		기대개수	42.8	102.2	145.0	
	없다	개수(비율)	6(2.9)	59(28.1)	65(31.0)	
		기대개수	19.2	45.8	65.0	
	전체(비율)		62(29.5)	148(70.5)	210(100)	
도서관 이용여부와 향후 독서활동 참여의사 간 관계			향후 독서활동 참여의사			χ^2 (p)
			있다	없다	총계	
도서관 이용여부	있다	개수(비율)	78(37.1)	67(31.9)	145(69.0)	20,872 (.000)*** (df = 1)
		기대개수	62.8	82.2	145.0	
	없다	개수(비율)	13	52	65(31.0)	
		기대개수	28.2	36.8	65.0	
	전체(비율)		91(43.3)	119(56.7)	210(100)	
독서활동 참여여부와 향후 독서활동 참여의사 간 관계			향후 독서활동 참여의사			χ^2 (p)
			있다	없다	총계	
독서활동 참여여부	있다	개수(비율)	48(22.9)	14(6.7)	62(29.5)	41,625 (.000)*** (df = 1)
		기대개수	26.9	35.1	62.0	
	없다	개수(비율)	43(20.5)	105(50.0)	148(70.5)	
		기대개수	64.1	83.9	148.0	
	전체(비율)		91(43.3)	119(56.7)	210(100)	

* > 0.05, ** > 0.01, *** > 0.001

〈표 9〉 독서실태 간의 관계 분석 3: 연속형 척도와 범주형 척도

항목			응답인원	평균	표준편차	t(p)
도서관 이용여부	독서 유용성	있다	145	4.579	.5853	4.537(.000)***
		없다	65	4.000	.9520	
	독서량	있다	145	15.410	13.3441	4.209(.000)***
		없다	65	8.592	9.5250	
	독서량 만족도	있다	145	3.145	1.0605	1.699(.091)
		없다	65	2.923	.7768	
독서활동 참여여부	독서 유용성	있다	62	4.548	.6937	1.829(.069)
		없다	148	4.338	.7873	
	독서량	있다	62	16.395	14.8026	2.088(.039)*
		없다	148	12.003	11.4658	
	독서량 만족도	있다	62	3.323	1.2116	2.066(.042)*
		없다	148	2.973	.8567	
향후 독서활동 참여의사	독서 유용성	있다	91	4.560	.6865	2.696(.008)**
		없다	119	4.277	.8017	
	독서량	있다	91	15.615	12.9750	2.341(.020)*
		없다	119	11.529	12.1856	
	독서량 만족도	있다	91	3.066	1.0729	-.132(.895)
		없다	119	3.084	.9167	

* > 0.05, ** > 0.01, *** > 0.001

평균(4.579)과 독서량 평균(15.410)이 이용한 적이 없는 사람의 독서 유용성 평균(4.000)과 독서량 평균(8.592)보다 높았다. 독서활동 참여여부에 따라서는 독서량과 독서량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했다. 독서활동에 참여한 적 있는 사람의 독서량 평균(16.395)과 독서량 만족도 평균(3.323)이 참여한 적 없는 사람의 독서량 평균(12.003)과 독서량 만족도 평균(2.973)보다 높았다. 향후 독서활동 참여의사에 따라서는 독서 유용성과 독서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했다. 향후 참여 의사가 있는 사람의 독서 유용성 평균(4.560)과 독서량(15.615)이 향후 참여의사가 없는 사람의 독서 유용성 평균(4.277)과 독서량(11.529)보다 높았다. 도서관은 독서의 유용성 체감과 양적 증가에는 영향력이 있지만 만족도에는 영향력이 검증되지 않았고, 독서활동은 독서량의 양적 측면과 질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독서의 유용성 측면에서는 영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

3.2 독서실태와 도서관 독서문화 환경 인식의 관계

도서관 독서문화 환경 인식은 연속형 척도로 된 4개 항목(도서관 만족도, 독서문화지원사업

중요도, 공간조성사업 중요도, 서비스사업 중요도)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 문항이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차원감소를 위해 산술평균값을 표준화시켜 Z-score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도서관 독서문화 환경 인식은 독서실태와 상관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도서관 독서문화 환경 인식을 종속변수로 인과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서실태의 연속형 척도와 도서관 독서문화 환경 인식의 관계는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서실태의 범주형 척도와 독서문화 환경 인식의 관계는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독서문화 환경 인식 항목별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범주형 척도를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독서실태의 연속형 척도 항목과 독서문화 환경 인식 항목의 상관분석은 다음 <표 10>과 같다.

독서 유용성은 도서관 만족도(0.378), 독서문화지원사업 중요도(0.285), 공간조성사업 중요도(0.315), 서비스사업 중요도(0.302)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은 독서 유용성으로 0.378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이 공간조성사업에 대한 중요도로 0.315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도서관 이용여부에 따른 독서 유용

<표 10> 독서실태와 도서관 독서문화 환경의 관계 1: 연속형 문항

항목	도서관 만족도	독서문화지원사업	공간조성사업	서비스사업
독서 유용성	.378(.000)**	.285(.005)**	.315(.002)**	.302(.003)**
독서량	.188(.066)	.204(.045)*	.203(.047)*	.227(.025)*
독서량 만족도	.036(.727)	-.010(.924)	.011(.913)	-.096(.352)

* > 0.05, ** > 0.01, *** > 0.001

성의 차이에서 도서관을 이용한 응답자가 없는 응답자보다 독서 유용성이 더 높았던 것과 상통하는 결과로, 도서관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독서 유용성이 높으며, 이 점에서 독서를 위한 공간 및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의 중요성도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독서량은 독서문화지원사업 중요도(0.204), 공간조성사업 중요도(0.203), 서비스사업 중요도(0.22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을 이용한 사람이 이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독서량은 높았지

만, 독서량이 도서관 만족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독서량 만족도는 어떤 항목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특히 모든 도서관 독서문화 환경 항목에서 0.100 이하의 상관계수가 나와, 도서관 독서문화 환경에서 독서량 만족도는 상관관계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독서실태의 범주형 척도 항목과 도서관 독서문화 환경 인식 항목의 독립표본 T-검정은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독서실태와 도서관 독서문화 환경의 관계 2: 범주형 문항

항목			응답인원	평균	표준편차	t(p)
도서관 이용여부	도서관 만족도	있다	63	4.141	.6682	6.394(.000)***
		없다	34	3.366	.5086	
	독서문화지원사업	있다	63	3.897	.5909	3.897(.000)***
		없다	34	3.418	.5518	
	공간조성사업	있다	63	3.957	.6992	3.968(.000)***
		없다	34	3.406	.5553	
	서비스사업	있다	63	3.986	.6806	3.442(.001)**
		없다	34	3.504	.6144	
독서활동 참여여부	도서관 만족도	있다	27	4.195	.6076	2.877(.005)**
		없다	70	3.744	.7215	
	독서문화지원사업	있다	27	4.076	.5312	3.650(.000)***
		없다	70	3.595	.6008	
	공간조성사업	있다	27	4.063	.6193	2.699(.008)**
		없다	70	3.648	.7005	
	서비스사업	있다	27	4.138	.6054	2.929(.004)**
		없다	70	3.694	.6910	
향후 독서활동 참여의사	도서관 만족도	있다	48	4.036	.6199	2.313(.023)*
		없다	49	3.707	.7746	
	독서문화지원사업	있다	48	4.004	.5880	4.818(.000)***
		없다	49	3.459	.5263	
	공간조성사업	있다	48	4.045	.7195	4.236(.000)***
		없다	49	3.489	.5658	
	서비스사업	있다	48	4.092	.6704	4.175(.000)***
		없다	49	3.548	.6126	

* > 0.05, ** > 0.01, *** > 0.001

모든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도서관을 이용한 사람, 독서활동에 참여한 사람, 향후 독서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도서관 만족도, 독서문화 지원사업 중요도, 공간조성사업 중요도, 서비스사업 중요도 모두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균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최근 1년간 도서관 이용여부에 따른 도서관 만족도로,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이 4.141, 없는 사람이 3.336으로 0.775점의 격차가 나왔다.

독서실태 항목의 독서문화 환경 인식에 대한 인과관계는 독서문화 환경 인식 4개(도서관 만족도, 독서문화지원사업 중요도, 공간조성사업 중요도, 서비스사업 중요도)를 각각 종속변수로 두고, 독서실태 항목 6개를 독립변수로 투입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중 범주형 척도로 측정된 도서관 이용여부, 독서활동 참여여부, 향후 독서활동 참여의사는 각각 긍정값을 1로, 부정값을 0으로 하는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투입하였다. 변수 투입 방법은 설명력이 가장 높은 변수들로 회귀모델을 구성하는 단계 선택으로, 종속변수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변수, 편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를 투입하며 설명력 변수 높은 변수들에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먼저 종속변수 중 도서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서실태 항목의 인과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12>와 같다.

첫 번째 모형은 '도서관 이용함'만을 변수로 투입하였고 26.0%의 설명력을 가진다. 반면 두 번째 모형은 '도서관 이용함'과 '독서 유용성'을 변수로 투입하였고 28.7%의 설명력을 가진다. 따라서 두 번째 모형이 채택되었다. 두 번째 모형은 F가 20.344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회귀식의 유의성이 확보되었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498로 2의 근사치를 보였고, VIF는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번째 모형은 독립변수인 '도서관 이용함'이 0.910, '독서 유용성'이 0.202의 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서관 이용함'에 대한 변수가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으며, 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 독서의 유용성을 느끼고 있는 사람일수록 도서관 만족도가 높았다.

종속변수 중 독서문화지원사업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서실태 항목의 인과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13>과 같다.

첫 번째 모형은 '도서관 이용함'만을 변수로 투입하였고 12.9%의 설명력을 가진다. 반면 두 번째 모형은 '도서관 이용함'과 '독서행사 참여함'을 변수로 투입하였고 18.2%의 설명력을 가진다. 따라서 두 번째 모형이 채택되었다. 두 번째 모형은 F가 11.677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회귀식의 유의성이 확보되었다. Durbin-Watson

<표 12> 도서관 만족도 다중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 E.	β	t(p)	VIF	Durbin-Watson	R ²	F
도서관 만족도 (모형2)	(상수)	-.591	.154		-3.843(.000)***		1.498	.287	20.344 (.000) ***
	도서관 이용함	.910	.196	.436	4.630(.000)***	1.196			
	독서 유용성	.202	.094	.202	2.140(.035)*	1.196			

투입방법: 단계적 투입

* > 0.05, ** > 0.01, *** > 0.001

〈표 13〉 독서문화지원사업 중요도 다중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 E.	β	t(p)	VIF	Durbin-Watson	R ²	F
독서문화 지원사업 중요도 (모형2)	(상수)	-.554	.156		-3.543(.001)**		1.966	.182	11.677 (.000) ***
	도서관 이용함	.605	.203	.290	2.986(.004)**	1.108			
	독서행사 참여함	.578	.216	.260	2.680(.009)**	1.108			

투입방법: 단계적 투입

* > 0.05, ** > 0.01, *** > 0.001

통계량은 1.966으로 2의 근사치를 보였고, VIF는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번째 모형은 독립변수인 '도서관 이용함'이 0.605, '독서 유용성'이 0.578의 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에 이용하면서 독서행사를 함께 참여한 응답자가 해당 지역의 독서문화지원사업의 중요성을 더욱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중 공간조성사업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서실태 항목의 인과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14〉와 같다.

공간조성사업 중요도는 단일 모형이 채택되었는데, '도서관 이용함'만을 변수로 투입하였

고 13.3%의 설명력을 가진다. F가 15.741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회귀식의 유의성이 확보되었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870으로 2의 근사치를 보였고, 독립변수가 1개만 채택되었으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모형은 독립변수인 '도서관 이용함'이 0.786의 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환경 중 시설로서의 도서관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공간 및 시설 조성 사업의 중요성을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중 서비스사업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서실태 항목의 인과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15〉와 같다.

〈표 14〉 공간조성사업 중요도 다중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 E.	β	t(p)	VIF	Durbin-Watson	R ²	F
공간조성사업 중요도 (모형1)	(상수)	-.511	.160		-3.197(.002)**		1.870	.133	15.741 (.000) ***
	도서관 이용함	.786	.198	.377	3.968(.000)***	1.000			

투입방법: 단계적 투입

* > 0.05, ** > 0.01, *** > 0.001

〈표 15〉 서비스사업 중요도 다중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 E.	β	t(p)	VIF	Durbin-Watson	R ²	F
서비스 사업 중요도 (모형4)	(상수)	-.167	.110		-1.511(.134)		1.995	.146	9.233 (.000) **
	독서행사 참여함	.600	.210	.270	2.861(.005)**	1.004			
	독서 유용성	.286	.094	.286	3.025(.003)**	1.004			

투입방법: 단계적 투입

* > 0.05, ** > 0.01, *** > 0.001

첫 번째 모형은 '도서관 이용함'만을 변수로 투입하였고 10.1%의 설명력을 가진다. 두 번째 모형은 '도서관 이용함'과 '독서행사 참여함'을 변수로 투입하였고 13.0%의 설명력을 가진다. 세 번째 모형은 '도서관 이용함', '독서행사 참여함', '독서 유용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고 16.1%의 설명력을 가진다. 그러나 변수 중 '도서관 이용함'의 t-값이 1.64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파악되었다. 네 번째 모형은 '독서행사 참여함'과 '독서 유용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고, 14.6%의 설명력을 가진다. 세 번째 모형이 설명력이 높지만 독립변수 중 하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그 다음으로 설명력이 높은 네 번째 모델이 채택되었다. 네 번째 모형은 F가 9.233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회귀식의 유의성이 확보되었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995로 2의 근사치를 보였고, VIF는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네 번째 모형은 독립변수인 '독서행사 참여함'이 0.600, '독서 유용성'이 0.286의 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일수록 고정된 인프라가 아니라 수시로 개최되는 비가시적인 서비스사업 측면의 중요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 의

분석 결과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A 지역은 적극적인 독서행위자와 관심 없는 자, 즉 독자와 비독자로 양극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도서관 이용여부와 독서활동, 도서관 이용여부

와 향후 독서활동 참여의사, 독서활동 참여여부와 향후 독서활동 참여의사의 교차분석에서 두 가지 다 긍정적인 응답을 한 응답자와 두 가지 다 부정적인 응답을 한 응답자의 개수가 기대 개수보다 더욱 높았다. 이는 도서관과 독서활동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독자 계층과 도서관과 독서활동 모두 참여하지 않는 비독자 및 무관심 계층이 양극적으로 이분화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독서 유용성을 크게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독서량에 대해 반성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 이들은 독서량이 많은 사람들이기도 하였다.

또한 독서문화지원사업 중요성을 종속변수로 둔 다중회귀분석에서도 유효한 독립변수가 '도서관 이용'과 '독서활동 참여'로 나타났다. 비독자가 아니라 이미 독자로서 독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독서문화지원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즉 독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독서행위를 더욱 확장하고 싶어하나 독서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독서 정도에 만족하며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자와 비독자의 양극화는 도서관 이용을 기준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독서실태 중 도서관 이용을 한 사람이 하지 않은 사람보다 독서 유용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도서관 만족도와 독서 유용성의 상관계수가 전체 항목 간 비교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0.378), 독서량은 도서관 만족도와는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도서관을 이용한 사람이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독서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즉 도서관 이용이 독서량의 양적 증가와 도서관 만족도 모두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최근 1년 간 도서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일수록 도서관 만족도가 높았고, 도서관을 이용하며 독서행사에 참여한 사람일수록 독서문화지원사업 중요도를 높게 인식했으며, 도서관을 이용한 사람일수록 공간조성사업 중요도를 높게 인식했다.

따라서 비독자를 유입하고 독서행위 자체의 양적 증가를 위해서는 독서행위 자체를 수행시키기보다 이유에 무관하게 도서관을 이용하게 만드는 경험을 확장하고 도서관의 접근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적극적 독자와 무관심한 비독자가 양극화되는 상황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미 독서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지방 행정의 다양한 독서문화 환경 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관심이 낮고 유관 정책사업의 효용성을 체감하지 못하여 독서문화가 소수의 적극적 독자들에 의해서만 향유될 확률이 높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적 독서행위와 독서활동, 독서량, 독서 유용성, 그리고 정책 중요성 전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를 가진 도서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도서관 이용 경험의 반복될수록 도서관에 대한 만족도와 독서활동의 지속을 위한 지역 행정의 독서문화 환경 지원 사업에 더욱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므로 도서관은 지역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최초의 유인책이자 시발점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비독자의 유입을 위해서는 독서행위 자체에 대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도서관 이용 경험과 접근성을 증가시키는 것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단, A지역은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해당 지역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독서문화 환경에 대한 인식 중 '다문화 서비스(3.629)'에 대한 인식이 최하위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어교육 등 다문화 인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가족센터 등에서 관련 정보요구를 충족하는 경우 등을 고려할 때,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 유관기관(가족센터, 사회복지시설 등)과 도서관 사이의 적극적인 연계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독서활동은 독서행위 활성화와 자기만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독서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독서량과 독서량 만족도가 높았다. 독서량은 도서관 이용여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변수이지만, 독서량 만족도의 경우에는 독서활동에 의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다. 특히 도서관 이용여부는 도서관 만족도, 독서문화지원사업 중요도, 공간조성사업 중요도를 종속변수로 두는 다중회귀분석에서는 계수가 높은 독립변수로 채택되었으나 서비스사업 중요도를 종속변수로 두는 다중회귀분석에서는 탈락했다. 대신 독서행사 참여여부와 독서 유용성이 서비스사업에 있어 중요한 독립변수로 작용했으며, 독서행사 참여여부는 독서문화지원사업 중요도에서도 독립변수로 채택되었다. 따라서 비독자의 유입 이후 독서행위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독서문화프로그램 등 독서활동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독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행위 자체가 유용하다는 인식만큼이나 행위에 대한 만족이 수반되고 관련한 독서환경을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독서량은 도서관의 만족도로 직결되지 않고 질적인 체감이 도서관 만족도와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독서행위의 질적 제고와 만족도를 위해서는 단순한 개인적 독서 행위 뿐 아니라 독서활동 등 다양한 시도가 수반되어야 한다. 독서활동을 체험한 사람들은 독서 관련 서비스사업의 중요도를 훨씬 가치 있게 느끼기 때문이다.

5. 결 론

이 연구는 독서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지역의 독서실태와 지역 행정 주도의 도서관 독서문화 환경에 관한 인식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탐색함으로써 지역 독서문화 형성의 선순환구조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 번째로 지역의 독서문화를 형성하는 독서실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하고, 지역 독서실태들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로 지역의 독서실태가 지방 행정 주도의 도서관 독서문화 환경 정책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는 것이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독자와 비독자는 중간 지점이 없이 활발한 독자와 무관한 비독자로 양극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도서관 이용경험이 있으면 독서량에 대한 양적 증가와 독서 유용성을 체감하고, 공간 조성 등 물리적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도 높게 인지할 수 있다. 다만 독서량 만족도 등 독서에 대한 자기만족과 도서관 내 비가시적 서비스의 중요성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등 독서활동 참여 경험이 중요하다. 그러나 다문화인

구 등 독서소외인에 대한 서비스는 그 자체로 중요성이 체감되지는 못하였다.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핵심이 비독자인구의 유입이고, 특히 독서복지의 차원에서 독서소외인들을 독서문화의 한 축으로 포섭하기 위해서는 관련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비독자 인구를 독서 인구로 유입하기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지역의 독서문화 형성을 위한 지역 행정의 구심점으로서 도서관의 역할, 특히 도서관 이용경험을 증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도서관 이용은 직접적인 독서실태와 무관하더라도 단지 접근점을 확장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의의를 가진다. 도서관 이용이 지역 행정의 도서관 독서문화 환경 정책 전반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관심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서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독서실태를 촉진하는 다양한 독서활동을 함께 경험하도록 하며 공간조성 등의 물리적 인프라 사업에 대한 중요성 뿐 아니라 독서 관련 서비스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

이 연구는 특정한 지역의 일부 인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도시 지역과 별도의 비교 연구를 진행하지 않아 일반화의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도서관 만족도와 관련 사업의 경우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문항과 사업 개념상 분리된 요인으로 묶어 산술평균의 표준화값을 사용하였다. 이는 후속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이은 (2021). 대학생의 독서 실태와 인식 조사. 국어교육학연구, 56(3), 5-34.
<http://doi.org/10.20880/kler.2021.56.3.5>
- 김성준 (2014). 학생 독서능력에 대한 독서환경, 독서경험, 독서교육의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
도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2), 51-71.
<http://doi.org/10.16981/kliiss.45.2.201406.51>
- 김은혜 (2024). 독서 교육을 위한 사회적 독서의 개념 연구: 국어 교사의 인식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학연구, 59(1), 71-96. <http://doi.org/10.20880/kler.2024.59.1.71>
- 김해인 (2022). 베이비붐 세대 독자 유형에 따른 독서 실태 분석. 한국어문교육, 39, 279-308.
<http://doi.org/10.24008/kle.2022..39.008>
- 김해인, 이창희 (2024).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독자의 독서 실태 변화 분석: 가정의 독서 신념과
독서 환경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47, 99-131.
<http://doi.org/10.24008/kle.2024..47.004>
- 김현애 (2022). 국내 독서복지 실태 및 개선방안: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62,
263-290. <http://doi.org/10.17095/JRR.2022.62.9>
- 김혜정, 허모아 (2021). 청소년기 독서 수행 및 인식에 관한 실태 조사: 비독서의 이유와 스마트폰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59, 9-50. <http://doi.org/10.17095/JRR.2021.59.1>
- 대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 고양시 제2차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2023~2027) 연구 용역.
고양시청.
- 문화체육관광부 (2019).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9~2023).
- 문화체육관광부 (2024a). 2023년 국민독서실태조사(발간등록번호 11-1371000-000154-10).
- 문화체육관광부 (2024b).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
- 송민선, 장인호, 황금숙, 김수경 (2023). 고양시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독서실태 조사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1), 285-308. <http://doi.org/10.4275/KSLIS.2023.57.1.285>
- 이은주, 김판수 (2022). 초등 수학영재의 독서 실태 비교 연구. 초등교육연구, 37(1), 34-53.
<http://doi.org/10.23279/eer.37.1.202202.34>
- 정혜승 (2008). 문식성 교육의 쟁점 탐구. 교육과정평가연구, 11(1), 161-185
- 한국도서관협회 (2021).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수립 연구 용역. 파주시청.
- 한국출판연구소 (2013). 2013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발간등록번호 11-1371000-000154-10). 문화체
육관광부.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ung, Hye-Seung (2008). A study on issues of literacy education.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11(1), 161-185
- Daelim Universit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2022). Research Service for Goyang City 2nd Comprehensive Plan for Reading Culture Promotion(2023~2027). Goyang City.
- Kim, Eunhye (2024). Examining the concept of social reading for education: focusing on teachers' perceptions.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59(1), 71-96.
<http://doi.org/10.20880/kler.2024.59.1.71>
- Kim, Haein & Lee, Changhee (2024). Analysis of changes in reading status among adolescent readers after COVID-19: focusing on the family literacy and reading environment. *Korean Literature & Language Education*, 47, 99-131. <http://doi.org/10.24008/klle.2024..47.004>
- Kim, Haein (2022). Analysis of reading status by type of baby boomer generation reader. *Korean Literature & Language Education*, 39, 279-308. <http://doi.org/10.24008/klle.2022..39.008>
- Kim, Hye-Jeong & Heo, Moah (2021). A survey on reading performance and perception in adolescence: focusing on the reasons for non-reading and aspects of smartphone use. *Journal of Reading Research*, 59, 9-50. <http://doi.org/10.17095/JRR.2021.59.1>
- Kim, Hyun-Ae (2022). Domestic reading welfare status and improvement plan: focusing on vulnerable children and youth. *Journal of Reading Research*, 62, 263-290.
<http://doi.org/10.17095/JRR.2022.62.9>
- Kim, Sung-Jun (2014). A study on the factors that affect students' reading ability: focused on Jeollabuk-do.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2), 51-71.
<http://doi.org/10.16981/kliiss.45.2.201406.51>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21). Research Service for Paju City Comprehensive Plan for Reading Culture Promotion. Paju City.
- Korean Publishing Research Institute (2013). 2013 National Reading Status Survey (11-1371000-000154-10).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Kwon, E-En (2021). A survey study of university students' reading status and percep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56(3), 5-34.
<http://doi.org/10.20880/kler.2021.56.3.5>
- Lee, Eun-Ju & Kim, Pan-Soo (2022). Comparative study on the reading status of elementary

mathematics gifted students. *Elementary Education Research*, 37(1), 34-53.

<http://doi.org/10.23279/eer.37.1.202202.34>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9). 3rd Basic Plan for Reading Culture Promotion (2019~2023).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4a). 2023 National Reading Status Survey (11-1371000-000154-10).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4b). 4th Basic Plan for Reading Culture Promotion [2024-2028].

Song, Min-Sun, Chang, Inho, Hoang, Gum-Sook, & Kim, Soo-Kyoung (2023). A study on reading survey for the establishment of Goyang city reading culture promotion pla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7(1), 285-308.
<http://doi.org/10.4275/KSLIS.2023.57.1.285>